유배 儒林, 근대 제주불교 형성 '견인차'

한금순 박사, 〈대각사상〉 28집 기고논문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민 중 23% 이상이 불자로, 한국서 가장 불심이 높은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선 숙종 시절 이형상 목사가 절오백 당오백이었던 제주도의 사찰들과 불상을 모두 파괴해 200여 년간을 무불(無佛)시대로 살아간 아픈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불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제주불교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한금순 박사(제주대 사학과 강사)는 최근 발간된 〈대각사상〉 제28집 기고논문 '유배인들이 제주 불교에 끼친 영향'에서 제주도에 유배왔던 유학자들의 영향과 이로 인한 제주 유림들의 불교 활동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한 박사가 꼽은 대표적 불교적 성향의 유배인은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금석문 학자인 추사 김정희였다. 김정희는 1840년부터 1848년까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그는 초의 스님과 각별한 교류를 이어갔고, 초의 선사는 그를 위해 6개월여 동안 제주 산방굴사에 머물기도 했다.

이 같은 김정희의 불교적 성향은 제주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이어졌다. 시문이 뛰어난 제자였던 이한진의 경우 초의 스님과 그 제자들까지 교류하며 불교 활동을 했다.

또한 온건개화파였던 김윤식은 1898년부터 1901년까지 제주도 유배하며, 당시 유림들에게 불교적 영향을 줬다. 그는 유배인 7명, 제주도 거주 육지인 논객 5명, 제주인 11명으로 구성된 '귤원시회'를 만들었고, 시회에서 불교 활동을 진행했다. 당시 활동을 적어놓은 김윤식의 〈속음청사〉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연등을 달거나, 〈전등록〉과 같은 불교 관련 서적을 읽고, 승려들과도 교류하는 기록들이 담겨있다.

또한, '귤원 시회'에 참여했던 김종하, 홍종시, 최원순은 제주불교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대정군수였던 김종하는 제주불교협회 창립 당시 고문으로 참여했고, 워싱턴 평화회의에 제출된 독립청원진정서에 서명한 제주읍장 홍종시는 협회 시회장으로 제주불교포교당 건립에 건축비를 희사하기도 했다. 제주 지역서 변호사로 활동한 최원순 역시 제주불교포교당 건립에 힘을 보탰다.



제주 추사관에 있는 추사 김정희와 초의 선사의 교류 재현 장면. 김정희의 불교적 성향은 제주도 제자들과 유림에 그대로 이어졌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불교가 다시 형성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불교에 조예 깊었던 추사 김정희
제자 양성하며 제주 유림에 영향
3년 유배 김윤식, 귤원 시회 결성
경전 읽고 승려 교류 등 불교활동

제주서당 30곳 초파일 행사열어
김석윤, 승려이자 유학자로 활동

이에 대해 한 박사는 "시회의 불교 활동이 김윤식과의 교류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며 "추사 이후 이어져 온 불교적 성향이 김윤식을 만나면서 짧은 시기에 함께 불교 경전을 돌려 읽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학자였던 김석윤이 스승의 영향으로 출가했던 점도 유배 유림의 영향임을 제시했다. 김석윤은 광양서재에서 수학 당시 유교경전 뿐만 아니라 〈금강반야경〉을 스승 김병규에게서 배웠다. 이 영향으로 17세인 1894년 전북 위봉사에서 출가하게 된다. 유학과 불교를 함께 공부한 그는 출가 승려이면서도 훈장으로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제주 유림들과 함께 제주의병항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관음사 창건을 돕기도 했다. 창건 이후에도 관음사 서무와 관음사 해월학원 교사를 역임했다.

한 박사는 제주 지역 서당에서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특별행사를 열던 사실들도 주목했다. 한 박사는 "실제 제주도 전역 32곳의 서당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달기, 씨름대회, 글짓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여기에는 학부모도 참여해 음식을 준비하는 등 일종의 마을 잔치로 치러졌음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배 유림으로 시작돼 제자들로 이어진 다양한 불교 활동들이 제주불교가 조선시대 이후 쇠퇴한 상황에서도 근대에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된 밑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모집

오는 2월 23일까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에서 2018년도 1학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전형이 2월 24일 실시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의 정원은 10명이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면 지원 가능하고 필기고사 전형이 있다.

이번 모집은 2017년 9월 신설한 한문아카데미 심화과정 2기 수강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이다.

기본과정 수강생도 모집한다. 학기당 16주 강의가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선발연수생과 한 과목씩 선택해 수강하는 일반연수생을 선발한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선발연수생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또한 조계종 스님이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지원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홈페이지(abc.dongguk.edu/academy)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와 대학(원) 재학증명서(혹은 최종학력 증명서)를 이메일(hanmun@dongguk.edu)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한국 미술사, 불화 문양으로 풀다

고승희 동국대 초빙교수 〈한국의 불화 문양〉 발간

불화 문양에 초점 맞춰 연구 도상 특징 및 편년 등 살펴



한국의 불화에 그려져 있는 문양을 천착한 연구서가 출간됐다.

고승희 동국대 미술학부 초빙 교수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불화 문양 · 사진〉은 한국 불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분석하고 도상의 특징을 파악한 보기 드문 불교 회화 연구서다.

고 교수는 연구서에서 한국의 불화가 문양의 보고(寶庫)이며, 문양이 불교미술 연구의 기초 자료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대학 입학해 불화를 그리면서 불화 문양에 관심을 갖게 된 고 교수는 이내 고려불화를 중심으로 문양 연구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서는 고 교수가 20여 년을 한국 고분벽화와 세계 각지의 소장 한국 불화를 조사하며 연구한 결과가 집대성됐다.

불화를 조성(造成)시기와 주존불상의 형태로 분류하고, 그림에 나타나는 무늬를 상징물과 그려진 위치, 등장 빈도에 따라 정리했다. 또한 불화 문양을 연구 자료로서 체계화하면서 불화 전체 도판과 직접 촬영한 부분그림, 도안으로 그려 낸 문양을 함께 제시했다.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됐다. 1장 '불화 문양 개요'에는 불화 문양의 의미를 살펴보고, 문양을 △식물문 △동물문 △자연문 △기하학문 등으로 나눠 정의했다. 2장 '삼국~통일 신라시대의 불화 문양'은 연꽃 문양을 중심으로 당시 시대의 문양 전개 양상을 살폈다.

3장 '고려시대 불화 문양'에서는 고려불화의 의의와 문양의 종류 및 특징을 설명하며, 4장에서는 조선시대 불화 중 괘불화와 후불탱화를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5장 '조선 후기 불화 문양의 양식 변천'은 광해군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등장한 화승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1920년대 불화의 문양을 체계화 했다. 마지막 6장은 앞선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고 교수는 "석사 과정 때 고려시대 불화 문양을 연구한 것을 시작으로 박사 과정서 조선시대 불화 문양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불화 문양을 도안화하고 정리해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교 회화 · 조각 · 공예 등에 나타난 분야별 불교미술 문양 연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월인석보'가 가진 국어학적 가치는?

동국대 ABC사업단, 25일 이현희 교수 특강 개최

현대적 주해 사업 일환으로

조선 세조가 간행한 〈월인석보〉가 가지는 국어학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특강이 열렸다. 〈오른쪽 사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단장 정승석)은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강의실에서 '〈월인석보〉의 국어학적 가치'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 강사로는 이현희 서울대 교수가 초청됐다.

최근 언해본 〈석보상절〉의 국어 · 불교 주해작업의 완간을 마무리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월인석보〉의 불교 · 국어 분야의 주해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특강 역시 〈월인석보〉 주해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특강에서 이현희 교수는 대비되는 다른 문헌들과 차이를 중심으로 〈월인석보〉에 담겨 있는 특징들을 다뤘다. 또한 텍스트 성격, 불교 대중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459년(세조 5)에 간행된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1447)〉과 석가모니의 전기인 산문 〈석보상절(1447)〉을 합편한 것으로, 운문을 대문(大文, 본문)으로 하고, 산문을 그에 대한 주석문으로 짝지어 놓은 문헌이다.

이에 대해 ABC 사업단은 "그동안 〈월인석보〉에 대한 연구는 불교적 지식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문장을 온전히 풀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특강은 〈월인석보〉의 불교학 문헌의 내용 이해와 지식체계에 보다 확대된 시각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매장문화재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된다

문화재청 등 오는 12월까지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는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도 매장문화재조사 분야 전문교육'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기본교육 2개 과정과 전문교육 7개 과정 등을 개설 · 운영한다.

교육일정과 교육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2)524-9262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